

고대한어(古代漢語) 부사(副詞)의 정의
Ancient Chinese Definition of the Adverb

박 상 령 (Pak, Sang-lyung) *

(E-mail : pxl@honam.ac.kr)

논문접수일 : 2008년 8월 20일

논문심사일 : 2008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 2008년 9월 25일

* 학위취득대학 : 전남대학교
현직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중국어학과 부교수

고대한어(古代漢語) 부사(副詞)의 정의

<국문요약>

본 논문은 고대한어 부사를 정의하기 위해, 부사라는 개념의 용어가 처음 사용된 『馬氏文通』의 출현을 기준 삼아 그 이전과 『馬氏文通』 및 그 이후로 나누어 살핀다. 『馬氏文通』 이전은 實·虛 관념의 출현과 虛字류의 副詞 관련 내용과 특징을 서술한다. 『馬氏文通』에 대해서는 ‘狀字’로 명명된 부사 개념의 출현과 내용을 살핀다. 『馬氏文通』 이후의 부사 연구에 대하여는 ‘狀字’에 대한 후대 사람들의 계승 관계와 實·虛 관념 및 정의를 중심으로 특징을 살핀다.

古代漢語에서 副詞로 규정할 수 있는 단어의 기능에 가장 근접한 정의를 내리는데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기로 한다. 부사어 기능을 하는 어휘 가운데서 부사로 여길 수 있는 것과 非 부사로 여겨 무방한 것들 간의 경계를 짓는 데 최적의 분별점을 찾아 부사류 범주에 대하여 보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주제어] 고대한어, 부사, 부사어, 마씨문통, 狀字

I. 서론

고대한어(古代漢語)의 품사 체계는 크게 實詞類와 虛詞類로 나뉜다. 그 아래 名詞·動詞·形容詞·數詞·量詞·副詞·代詞·介詞·連詞·助詞·嘆詞를 둔다. 이 가운데 副詞는 그 정의와 다른 품사와의 경계가 특히 명확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용에 사람마다 차이가 크고 혼란도 많다. 實·虛 귀속에서조차 실사로 보는 측과 허사로 보는 측이 다 있다.

모든 실사류가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고대한어에서 부사로 규정할 수 있는 의미 항목은 오직 부사어로만 쓰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다른 품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와 적절한 경계를 지을 수 있다. 이것이 부사를 바르게 정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이다.

清代 馬建忠이 쓴 『馬氏文通』에 이르러 ‘狀字’라고 명명한 어휘군이 오늘날 부사라 일컫는 어휘군의 모태라고 여겨진다. 馬建忠이 영문법의 품사 분류와 문장 성분 체계를 도입하여 처음으로 고대한어의 문법 체계 수립을 시도한 것과,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전통적인 實·虛 관념과도 연계시킨 의의는 자못 크다. 그러나 그가 영어의 ‘adverb’에 맞추어 설정한 ‘狀字’는 영어와 고대한어의 상이한 특징에 입각한 특별한 이론 체계를 마련한 데 의거한 품사 분류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 고대한어 품사론의 바탕을 다듬어야 한다. 『馬氏文通』 품사론의 이러한 한계는 그 뒤 한 번도 검증됨이 없이 증폭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늘날 부사라고 일컫는 어휘군의 분류 내지 내용이 저마다 다르고 ‘狀字’의 내용과도 크게 다른 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馬建忠이 영어에서의 부사의 기능에 착안하여 ‘實字’로 여긴 것을 뒷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虛詞’에 넣은 것은 그의 품사 분류의 한계를 부풀린 한 예이다.

본 논문에서는 『馬氏文通』의 출현을 기준 삼아 그 이전과 『馬氏文通』 및 그 이후로 나누어 살펴기로 한다. 『馬氏文通』 이전은 實·虛 관념의 출현과 虛字류의 副詞 관련 내용과 특징을 추적한다. 『馬氏文通』에 대해서는 ‘狀字’로 명명된 부사 개념의 출현과 내용을 살핀다. 『馬氏文通』 이후의 부사 연구에 대해서는 ‘狀字’의 계승 관계와 實·虛 관념 및 정의를 중심으로 특징을 살핀다. 고대한어에서 副詞로 규정할 수 있는 단어의 기능에 가장 근접한 정의를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기로 한다. 부사어 기능을 하는 어휘 가운데서 부사로 여길 수 있는 것과 非부사로 여겨 무방한 것들 간의 경계를 짓는 데 최적의 분별점을 찾아야 부사류 범주에 관한 인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고대한어 부사 연구 개관

한어의 품사 체계는 보통 크게 ‘實詞’와 ‘虛詞’ 두 부류로 압축하여 일컫는다. 그 하위범주는 학자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實詞’는 名詞, 動詞, 形容詞, 數詞, 量詞, 代詞 등을 아우르고, ‘허사’는 介詞, 連詞, 助詞, 嘆詞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부사’에 대해서는 실사로 보는 측과 허사로 보는 측의 세가 비슷한 형편이다.

1. 『馬氏文通』 이전의 ‘虛詞’ 연구와 副詞

중국 언어학사상 흔히 訓詁期라고 부르는 漢代의 주석서 중에는 ‘辭’나 ‘語助’ 같은 용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書經·金縢』의 “對曰: 信, 噫.”에 대해 『僞孔傳』에서 注하기를 “噫, 恨辭也.”(噫는 탄식하는 말이다)라 하였고, 許慎은 『說文解字』에서 “者, 別事辭也.”(者는 사물을 구별하는 말이다)라 하고 “矣, 語已辭

也。”(矣는 말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鄭玄(127-200)은 『禮記·檀弓』注에서 “檀弓曰: 何居”에 대해 “居, 語助也.”(居는 어구의 도움이다)라고 풀이하었다. ‘辭’는 ‘實詞’ 또는 ‘虛詞’ 중 어느 것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지만, ‘辭’와 ‘語助’라는 말로 설명된 ‘噫·者·矣·居’ 등의 풀이를 보면 지금의 ‘虛詞’의 하위범주인 ‘탄사·조사’에 상당한다.

魏晉南北朝에 晉代의 郭璞은 『法言義疏·學行卷』에서 ‘發語詞’라 이르고, 晉代의 杜預가 ‘疑詞’라 이른 것 등도 오늘날 ‘虛詞’라 이르는 것의 개념과 범주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된다. 南朝의 梁代에 劉勰은 『文心雕龍』(121)에서 ‘發端’·‘札句’·‘送末’ 등으로 ‘虛詞’에 속하는 단어들을 구별하였다.¹⁾

唐代의 孔穎達은 『五經正義』(642)에서 漢語의 단어를 ‘制義’와 ‘句助’의 두 종류로 분류한 바 있다.

五代의 徐鍇(920-974)는 『說文繫傳·類聚篇』에서 ‘類聚’를 ‘於·者·爾·只·乃·曰·兮·于·粵·乎·可·曾·況·矣·知’ 등을 아우르는 말로 사용했다. 이는 『說文解字』의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데 모아 놓은 것으로 徐鍇가 이러한 字들의 공통된 특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宋代에 이르러서는 ‘實字’와 ‘虛字’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南宋의 周輝(1126-?)가 쓴 『清波雜誌』卷七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東坡教諸子作文, 或辭多而意寡, 或虛字多, 實字少, 皆批諭之.

(소동파가 생도들에게 작문을 가르쳤는데, 어떤 것은 말[어휘, 단어]는 많으나 뜻이 적고, 어떤 것은 허자가 많고 실자가 적어서 다 비평하여 가르쳤다.)

1) 이하 孫良明(2002)의 『中國古代語法學探究』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된 각 시기의 요점을 종합한다.

또 張炎(1248-1230?)의 『詞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此類虛字却要用之得其所, 若使盡用虛字, 句語又俗……

(…이러한 부류의 허자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함에 그 자리[적재적소]를 얻게 해야지, 모두 허자를 쓰게 할 것 같으면 말귀가 비속해지기도 한다…)

宋代 이후부터 非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만을 수록한 저서들이 출현한 것으로 보아, 宋代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사물의 개념을 실질적인 것(實)과 非 실질적인 것(虛) 두 가지로 분류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非실질적 어휘만을 수록한 저서는 元代 盧以緯의 『助語詞』(1324), 清代 袁仁林的 『虛字說』(1710), 劉淇의 『助字辨略』(1711년), 王引之의 『經傳釋詞』(1798) 등이 있다. 이 가운데 『助字辨略』에 쓰인 ‘或然之辭’, ‘繼事之辭’, ‘終境之辭’, ‘總括之辭’ 따위의 술어(術語)는 뒷날의 『馬氏文通』에도 보인다. 王引之의 『經傳釋詞』는 馬建忠의 『馬氏文通』 뿐만 아니라 孫經世의 『經傳釋詞補』와 『經傳釋詞再補』, 吳昌瑩의 『經詞衍釋』 등을 비롯하여 현대의 중국 언어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王引之는 『經傳釋詞』에서 모든 虛詞를 ‘常語’·‘語助詞’·‘歎詞’·‘發聲詞’·‘通用詞’·‘別義’의 6류로 분류하였다. 그 가운데 ‘以’·‘已’·‘焉’·‘於’·‘于’·‘抑’·‘邪’·‘而’·‘如’·‘若’·‘然’·‘爾’ 등을 ‘常語’라 하였는데, 이들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허사로 여기는 단어에 속한다.

중국 文法學史상 漢字를 實字와 虛字로 구분한 일은 이미 宋代에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字와 詞를 구분하는 관념은 보이지 않는다. 宋代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虛詞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實字’·‘虛字’ 또는 ‘實詞’·‘虛詞’로 명명되는 어휘의 범주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다만 『助字辨略』이나 『經傳釋詞』 등에서 ‘虛字’로 분류한 명칭들에 의해서는 그들이 虛詞로 인식한 어휘의 범주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清

代의 虛字 개념은 오늘날의 虛詞에 매우 접근하였음을 확인케 해 준다. 즉, 袁仁林의 『虛字說』에서는 “…故虛字者所以傳其聲, 聲傳而情見焉.”(까닭에 虛字란 그것을 가지고서 그 소리를 전하는 바이다. 소리가 전해지면 정황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王鳴昌의 『辨字訣』과 劉淇의 『助字辨略』 등 저서에서 虛字에 관해 서술한 내용도 이와 비슷하다.

清代까지의 문헌을 통해서 ‘副詞’를 한 덩어리의 품사로 인식한 예는 찾을 수 없다. 實과 虛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각자가 ‘虛字’로 여긴 단어군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늘날 부사로 분류하는 어휘가 들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일부를 ‘虛字’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實詞’·‘虛詞’로 일컫는 어휘에 대한 인식은, 宋代 이전까지는 다소 모호한 상태였다가 점차 ‘實’과 ‘虛’로 압축되고 清代부터는 實字와 虛字라는 명칭으로 통괄되다가, 현대에 이르러 字와 詞를 구분하게 됨에 ‘實詞’와 ‘虛詞’라는 명칭을 주로 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馬氏文通』의 ‘狀字’

『馬氏文通』(1898, 馬建忠)은 清代의 끝이자 현대의 시작점에 나온 저작이다. 그간의 연구 결과로 前代의 문법 관념을 수용한 흔적도 확인되었다. 전적으로 영문법에 근거하여 고대한어의 문법을 기술한 최초의 저작이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과대한 평가를 받아왔다. 『馬氏文通』이 영문법의 체계를 원용하여 고대한어의 문법 체계를 세우면서도, 중국의 전통적인 實字와 虛字의 개념을 버리지 않은 점도 높이 평가되었다.

이 책은 모두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은 문법 술어의 개념을 정의한 ‘正名’편인데, 그 중 ‘字類’(품사 분류)와 ‘句讀’에서 23 종류의 기본 명칭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제2권부터 제6권까지는

‘名字’를 비롯하여 ‘代字’, ‘名·代之次’, ‘靜字’, ‘動字’, ‘狀字’ 등 소위 實字에 속하는 품사를 다루었고, 제7권부터 제9권까지는 ‘介字’를 비롯하여 ‘連字’, ‘助字’, ‘數字’ 등 虛字를 다루었다. 제10권은 句讀篇으로 ‘起詞’, ‘語詞’, ‘止詞’, ‘轉詞’, ‘頓’, ‘讀’, ‘句’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품사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품사의 기능에 따른 문장 성분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총괄하여 말하면 영문법의 형태론에서의 품사 분류와 통사론에서의 기능을 골간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馬氏文通』 正名篇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凡字有事理可解者曰實字, 無解而惟以助實字之情願者曰虛字. 實字之類五, 虛字之類四.

(무릇 글자가 사물의 이치를 지니고 있어서 풀이할 수 있는 것은 ‘실자’라고 하며, 풀이할 것은 없으며 오직 ‘실사’가 형편상 필요로 하는 것을 돕는 것을 ‘허자’라고 한다. 실자의 갈래는 다섯이고 허자의 갈래는 넷이다.)

馬建忠의 이 9가지 품사 분류는 오늘날 한어 품사 분류의 근원이 되고 있다. 외견상 현대의 분류가 馬建忠의 것과 다른 점은 數詞를 형용사(靜字)에서 분리해 내고 量詞를 추가하여 이들을 독립된 품사로 설정한 점이다.²⁾ 오늘날 고대한어의 품사를 가름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서로 명칭이 같거나 비슷할지라도, 그 내용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다. 그 가운데 ‘副詞’는 馬建忠이 ‘狀字’라고 한 것에 가장 가깝다. 그리고 그는 ‘狀字’를 ‘實字’로 여겼다.

『馬氏文通』의 각 품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名字: “凡實字以名一切事物者曰名字.”

무릇 실자로서 (그것으로) 일체의 사물을 명명하는(이름 짓는) 것은

2) 呂叔湘·王海榮(2002, 5), 『馬氏文通讀本』, 上海教育出版社.

명자라 한다.(지금의 명사에 상응)

-代字: “凡實字以指名曰代字.”

무릇 실자로서 명칭을 가리키는 것은 대자라 한다.(지금의 대사에 상응)

-靜字: “凡實字以肖事物之形者曰靜字.”

무릇 실자로서 사물의 형상을 비슷하게 묘사하는 것은 정자라 한다.(지금의 형용사에 상응)

-動字: “凡實字以言事物之行者曰動字.”

무릇 실자로서 사물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은 동자라 한다.(지금의 동사에 상응)

-狀字: “凡實字以貌動靜之容者曰狀字.”

무릇 실자로서 동사와 형용사의 모습을 꾸미는 것은 상자라 한다.(지금의 부사에 상응)

-介字: “凡虛字以聯實字相關之義者曰介字.”

무릇 허자로서 실자간에 서로 관계되는 뜻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개자라 한다.(지금의 개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조사의 일부를 포함함)

-連字: “凡虛字用以爲提承展轉字句者統曰連字.”

무릇 허자로서 그것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이어받고 펼치고 전환하는 자구를 만드는 것은 통합하여 연자라 한다.(현재의 연사에 상응)

-助字: “凡虛字用以煞字與句讀者曰助字.”

무릇 허자로서 그것을 사용하여 문장을 마감하는 것을 조자라 한다.(지금의 조사에 상응)

-歎字: “凡虛字以鳴人心中不平之聲者曰歎字.”

무릇 허자로서 사람 마음 속의 고르지 않은 소리를 울려내는 것을 탄자라 한다.(지금의 탄사에 상응)

『馬氏文通』의 ‘狀字’는 오늘날의 부사와 비슷하지만 현대의 학자들이 설정한 부사의 내용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狀字’는 영어의 ‘adverb’에 상응하는 품사로 설정한 개념이지만, 다른 품사들도 부사어가 되는 고대한어의 특성상, 고정된 품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어떤 품사라도 이러한 문법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왕왕 품사로서의 ‘부사’와 문장 성

분으로서의 ‘부사어’를 혼동하여 모두 ‘狀字’라 이르기도 하였다. 『馬氏文通』은 또 ‘狀字’가 動字나 靜字 또는 다른 狀字를 수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名字나 代字도 수식할 수 있다고 여겼다. 다음은 이 책에서 ‘狀字’가 수식할 수 있는 품사를 열거한 것이다.

狀字狀動字：天油然作雲，沛然下雨。

狀字狀靜字：子謂『韶』盡美矣，又盡善也。

狀字狀狀字：吾是以不果來也。

狀字狀名字：視天下悅而歸已，猶草芥也。

狀字狀代字：是以若彼濯濯也。

狀字狀頓：吾從子知驂之靳。

狀字狀讀：或生而知之，或學而知之。

‘狀字’ 외에 ‘狀語’라는 말도 『馬氏文通』에서 자주 사용된다. ‘狀語’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凡狀字或名字，集至兩字或三四字，以記時記處者，往往自成一頓，³⁾ 無所名也，名之狀語。

(무릇 狀字나 名字가 모아져서 두 글자 내지 서너 글자에 이르면, 이것으로 시간을 나타내거나 장소를 나타내는데 왕왕 스스로 하나의 휴지를 이룬다. 명명할 바가 없기에 그것을 狀語라 이름 한다.)

이는 ‘狀語’가 전적으로 문장 성분을 가리키는 용어로 설정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실제로 그것의 내용 역시 ‘狀字’와 일치하는 예가 많다. ‘狀字’란 ‘狀動靜之容’하는 ‘實字’로 정의되어 있으니

3) 劉志祥 (2006, 22卷3期), 『『馬氏文通』之‘頓’小議』, 『四川教育學院學報』.

“‘頓’是《馬氏文通》中論句讀的一個術語，但是由於《馬氏文通》沒有給它立界說，解釋也不夠清楚，所以人們對它的性質存在不同的看法。通過‘頓’與‘讀’、‘句’的比較，解釋‘頓’是馬氏論句讀的一種語法單位，是句的下位概念，其句法作用略同於現在我們所說的短語，與書中的‘讀’是同一級語法單位，雖然在形式上似乎有交叉之處，但是它們之間實際上是對立和互補的關係。”

‘狀字’와 ‘狀語’ 간에는 당연히 등식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야 옳다. ‘狀語’는 ‘狀字’ 이외에 狀字 기능을 가진 일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狀字’와 연관되는 용어로 ‘狀語’ 외에 ‘狀讀’이라는 것도 있다. ‘狀語’란 다른 부사어를 가리키는 통칭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狀字를 가리키기도 한다. 狀讀 이외의 모든 狀字 기능을 가진 성분이라고 여기는 이도 있다.⁴⁾

이는 고대한어가 영어의 경우와 달리 ‘부사’와 ‘부사어’가 엄격한 대응관계를 갖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긴다. 馬建忠은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를 철저히 정리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狀字는 수식하는 말(자, 단어)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靜字와 구별되며, 주로 動字나 靜字 또는 다른 狀字를 수식하는 말을 가리킨다. 動字·靜字 앞에 놓여 이것들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정태를 꾸미므로 實字로 여졌다. 이는 영어에서 형용사[靜字]가 명사[名詞]를 수식하는 기능에 상대해서 부사가 동사·형용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위주로 정의한 것이다.

『馬氏文通』은 고대한어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하나의 문법 체계를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전통적 문법 관련 연구의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虛詞의 체계화와 구두표기와 語順·省略·倒置 등에까지 미치는 체계화는 『馬氏文通』 나름의 독창으로 여겨지고 남음이 있다. 그러나 馬建忠은 언어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사고 논리와 문법을 혼동하고 있어서 각 나라 언어의 문법이 기본적으로 같다고 여긴 것 같다. 이는 『馬氏文通』에 숨어 있는 非漢語的 기술 오류의 기본 바탕이기도 하다.

흔히 『馬氏文通』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첫째, 광범위한 예문을 제시했다. 예문의 절대 다수가 고대한어에 속하는 것이고 대략 7천~8천개에 달하는 예문이 수록되어 있

4) 王維賢(1963, 第2期), 「『馬氏文通』句法理論中的“詞”和“次”的學說」, 『杭州大學學報』.

다.

둘째, 문법 규칙의 수립에 충실하였다. 품사 분류와 예문 제시에 그치지 않고 문법 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의문대사가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 동사 앞에 위치한다든지, 부정문에서 대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吾’, ‘我’, ‘余’, ‘予’ 간의 차이점을 밝혔고, 介詞 ‘之’와 代詞 ‘何’·‘此’와의 관계 등을 서술하였다.

셋째, 문법과 수사학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수식어와 피수식어 간의 배열이라든지 글자 수의 홀짝 처리 등 문법 규칙과 수사학의 적절한 운용을 시도한 노력이 보인다.

넷째, 전체적으로 보아 배열이 정연하고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서술하였다.

『馬氏文通』의 단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들이 있다.

첫째, 용어 개념이 확실치 않다. 신 용어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구 개념의 구별 없이 혼용되고 있어서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킨다.⁵⁾

둘째, 서양 문법 체계를 모방하였다. 『馬氏文通』의 서양의 문법 체계를 가지고 중국 문법 체계를 수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어의 특성이 결여된 채 억지로 서양 문법에 끼워 맞추려고 한 병폐가 적지 않다. 이런 병폐는 용어의 풀이 과정에서도 혼란을 일으켰다.

셋째, 문장 구조의 층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예를 들면 ‘讀’과 ‘句’를 같은 선상에 놓고 분석함으로써 문장 내부의 층차 관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게 한 결함이 있다.

『馬氏文通』은 상술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서 학계의 평가도 엇갈린다. 그러나 『馬氏文通』은 처음으로 實字와 虛字를 문법학의 개념으로 사용했고 정의를 내렸으며 그 범위를 설정했다는 데에는

5) 呂叔湘(1986, 40), 『馬氏文通讀本』, 上海教育出版社.

의의가 없는 듯하다. 또 비록 서구 문법 용어인 ‘adverb’에서 원용하기는 했으나 副詞를 의미하는 ‘狀字’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고 이를 ‘實字’에 소속시켜 기술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3. 『馬氏文通』 이후의 副詞 연구

清代는 文字·音韻·訓詁·修辭 등 각 방면에서 언어의 연구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전통 문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훈고의 방면에서 새로운 관점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래서 『馬氏文通』의 발간은 중국 문법학사상 획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馬氏文通』이 나온 후, 이것의 영향을 받아 1920년대에는 다수의 문법서가 나왔다. 『馬氏文通』의 체제와 내용을 답습한 것도 있고, 다소간에 수정·보완을 가하여 한어의 특징에 좀더 가까이 다가간 것도 있었다. 이들 저작은 문법상 단어의 意味와 機能을 보는 관점에 큰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1949년 이전에는 의미 쪽을 重視하다가, 1949년이 지나서는 기능 쪽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副詞와 관련된 대표적인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陳承澤(1922)은 『國文法草創』에서 ‘副詞’라고 부르지 않고 ‘副字’라고 불렀다. 『馬氏文通』 이후 9품사로 나뉘던 품사 분류에서 대명사를 명사에 귀속시켜 8품사로 나누었다. 그리고 실사에 名字·動字·狀字·副字를, 허사에 介字·連字·助字·感字를 넣었다.⁶⁾ 副詞에 해당하는 副字를 陳承澤 역시 實詞로 여겼다.

黎錦熙(1924)는 『新著國語文法』에서 ‘副詞’라고 부르고 이는 “사물의 동작이나 형태 및 성질들을 구별하거나 제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나 형용사 및 다른 부사와 어울려 쓰인다.”⁷⁾고 하고 實詞에 넣었다. 비록 명사의 앞에 쓰일 수 있음을 말하지 않았으나, 陳

6) 陳承澤(1922, 21), 『國文法草創』, 北京商務印書館.

7) 黎錦熙(1924, 10),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承澤과 더불어 부사의 기능에 주의하고 그에 따라 실사로 여김으로써 부사의 기능(문장 성분)에 따른 인식을 보인 것이라 여긴다.

呂叔湘(1942)은 『中國文法要略』에서 文言文과 白話文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들어 설명했다. ‘限制詞(副詞)’라고 칭하고 副詞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時間副詞를 비롯하여 程度·判斷·方位·動態·否定 및 一般 副詞 등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實詞로 여겼다.⁸⁾

王力(1943)은 『中國現代語法』에서 副詞에 대해 “이는 단지 정도와 범위 시간 가능성 및 부정을 나타낼 뿐, 단독으로는 실제 사물을 나타내지 못 한다”고 전제하고, “순수한 實詞도 虛詞도 아닌 半實半虛에 속하며 문장 속에서는 단독으로 주어나 술어로 쓰이지 않는다.”⁹⁾라고 하였다. 副詞를 虛詞 쪽에 더 가까이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劉景農(1959)은 『漢語文言語法』에서 “부사란 동사와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¹⁰⁾이라고 설명하고 부사를 程度·範圍·時間·否定的의 4가지로만 나누었다. “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들이 주술관계가 아니면서 명사가 동사를 수식할 경우, 이는 부사에 가깝다”¹¹⁾라고 하여 ‘명사 부사어’를 ‘부사’로 보았다.

許世瑛(1966)은 『中國文法講話』에서 ‘限制詞’ 또는 ‘副詞’라고 지칭했으며, 이는 문장 속에서 주어나 술어 등 주요 성분이 되지 못하고 程度나 範圍 時間 가능성 및 부정 등을 표시할 뿐, 단독으로 실제 사물이나 상황을 표시할 수 없다고¹²⁾ 하였다. 副詞를 實詞의 범주에 넣었다.

郭錫良(1981)은 『고대한어』에서 副詞는 動詞와 形容詞를 修飾하

8) 呂叔湘(1980, 17), 『中國文法要略』, 北京商務印書館.

9) 王力(1943, 13/18/131), 『中國現代語法』, 北京商務印書館.

10) 劉景農(1994, 64),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이 책은 1994년에 출판되었으나 저자가 책을 저술한 시점은 1959년임.

11) 劉景農(1994, 65),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2) 許世瑛(1966, 31), 『中國文法講話』, 開明書局.

여 문장 속에서 주로 狀語 역할을 한다고 했다. 副詞을 程度·範圍·時間·情態·否定·表敬의 여섯 가지로 분류했으며, 虛詞의 범주에 넣었다.¹³⁾

朱德熙(1982)는 『語法講義』에서 形容詞와 副詞의 차이점을 비교한 다음 副詞을 虛詞라고 규정했다. 그 내용인즉, “형용사는 실사로서 자유스럽고 단독적으로 문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부사는 허사로 단독으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부가 성분으로만 쓰인다. 그리고 형용사는 狀語 역할을 하는 외에도 定語·謂語·補語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부사는 오로지 狀語 역할 밖에 할 수 없고 定語나 謂語·補語는 될 수가 없다”¹⁴⁾는 것이다. 그가 부사를 허사로 여긴 근거는 형용사가 담당할 수 있는 문장 성분과의 차이에 있다. 그의 實과 虛의 관점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형용사나 부사가 다같이 수식 기능을 갖는 단어라는 점을 소홀히 한 것이라 여긴다.

楊伯峻·何樂士(1992)는 『古漢語語法及其發展』에서 副詞는 주로 행위나 상태의 제반 특징을 나타내며 주로 謂語를 수식한다고 설명하였다. 또 動詞와 形容詞 및 名詞謂語를 修飾하나 다른 명사를 직접 수식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부사어로 쓰이나 補語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 副詞를 虛詞로 여기고 程度·狀態·範圍·否定·疑問·推度·時間·判斷·連結·勸令·謙敬의 11가지로 분류하였다.¹⁵⁾

廖振佑(2001)는 『고대한어特殊語法』에서 副詞를 虛詞의 범주에 넣어 다루었으며,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고 동사와 형용사 및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고 전제하고, 문 중에서 부가 성분으로 쓰일 뿐 주요 성분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했다. 程度·範圍·時間·表數·否定·情態·語氣 副詞 등으로 구분하였다.¹⁶⁾ 동사·형용사 및

13) 郭錫良(1981, 312), 『고대한어』上冊, 北京出版社.

14) 朱德熙(1982, 192), 『語法講義』, 北京商務印書館.

15) 楊伯峻·何樂士(1992, 223),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 語文出版社.

16) 廖振佑(2001, 107), 『고대한어特殊語法』, 內蒙古人民出版社.

다른 부사만을 수식한다고 한 것은 영문법의 부사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는 고대한어에서 명사도 술어가 될 수 있으며 술어가 되는 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간과한 것 같다.

다음 표는 상술한 여러 학자들의 부사 분류를 총괄하고 그 밖의 몇몇 학자들의 분류 내용을 곁들여 분류 형식의 차이가 쉽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실사와 허사를 나누고 부사를 어느 한 쪽에 귀속시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半實半虛로 주장한 사람도 있으며, 일부는 아예 부사의 허실을 언급하지 않았음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實·虛만 분별하고 종류는 나누지 않은 이도 있다.

【부사의 실·허 관별과 종류】

허실	저자	서명	연도	부사분류	저술대상
실사	陳承澤	國文法草創	1922	없음	고대한어
실사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1924	없음	현대한어
실사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1942	程度 時間 動態 否定 方位 判斷 一般	고대한어
실사	許世瑛	中國文法講話	1966	없음	고대한어
실사	殷國光	呂氏春秋詞類研究	1997	程度 範圍 時間 否定 情狀 謙敬 語氣 連接	고대한어
허사	王力	中國現代語法	1943	없음	현대한어
허사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1959	程度	고대한어

				範圍 時間 否定	
허사	廖序東	文言設法分析	1981	程度 範圍數量 時間 肯定否定 表敬 語氣	고대한어
허사	郭錫良	古代漢語	1981	程度 範圍 時間 否定 情態 表敬	고대한어
허사	朱德熙	語法講義	1982	없음	현대한어
허사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1992	程度 範圍 時間 否定 狀態 疑問 推度 判斷 連結 勸令 謙敬	고대한어
허사	廖振佑	古代漢語特殊語法	2001	程度 範圍 時間 否定 情態 表數 語氣	고대한어
반실 반허	易孟醇	先秦語法	1989	程度 範圍 性態 敬謙 語氣 應對 表數	고대한어
반실 반허	郭錫良 唐作藩	古代漢語	1996	程度 範圍	고대한어

	何九盈 蔣紹愚 田瑞娟			時間 否定 性態 表敬	
반실 반허	張能甫	鄭玄註釋語言詞彙研究	2000.3	程度 範圍 時間 否定 性態 推度 語氣 疑問 其纏	고대한어
없음	董希謙 王松茂	古漢語簡明讀本	1984	程度 範圍 時間 否定 性態 謙敬 語氣 指代性	고대한어
없음	李思德 丁龍澗 張永華	古漢語語法修辭詞典	1988	程度 範圍 時間 否定 性態 謙敬 頻率 語氣	고대한어
없음	管錫華	史記單音詞研究	2000.5	程度 範圍 時間 肯定 謙敬 關係 方式 頻度 語氣	고대한어

4. 고대한어의 虛詞와 副詞의 實·虛 귀속

실·허의 개념 구분은 사람마다 자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품사론에서 단어의 의미와 직능, 즉 실질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에 의해서 단어의 부류(詞類)를 나누고, 직능은 주로 통사론의 각도에서 확인되므로 실·허의 경계를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잡을 수가 있다. 부사에 관한 한, 문장의 두 가지 수식 성분 가운데 술어성의 동사·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단어를 정의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수식받는 말이 있고 그것을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수식하는 말을 ‘虛’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글에서 부사의 실·허에 관한 접근도 논의상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 된다.

‘副詞’를 ‘虛詞’로 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은 영어 문법에서 ‘副詞’라는 품사의 설정이 다른 품사들과 마찬가지로 단어의 문장 중에서의 기능(문장 성분)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통찰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副詞’의 기능이 ‘수식’에 있다고 하면서도 ‘虛詞’라고 하는 까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虛’의 관념은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副詞’의 기능이 동사·형용사·다른 부사 또는 이들에 상당하는 어구의 수식에 있으며, 수식하는 말이 되려면 의당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므로 ‘實詞’로 여긴다. 비록 고대한어에서 부사가 다른 實詞들과는 달리 오직 수식어로만 쓰이지만 그것이 허사로 여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것도 고대한어 부사의 한 특징일 따름이지, 술어·보어·주어·목적어·관형어 등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虛詞’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근래에 현대한어에서나 고대한어에서나 부사를 허사로 여기려는 경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다.

‘以·與’ 등이 동사·개사·연사(접속사)에 두루 속한다고 여기

고, ‘得·欲·可·足’ 등이 일반 동사나 일반 형용사로 쓰임과 동시에 다 같이 조동사에도 속한다고 여기며, ‘舉·益·無’ 등을 동사와 부사를 겸하는 단어로 여기고, ‘惡·焉’ 등을 대사 겸 부사로 여기는 따위는 모두 상술한 문법 관념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가지 의미만을 갖는 단어와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의 의미가 문장 가운데서 오직 부사어로만 쓰여서, 명사·동사·형용사·대사·수사 등이 이들 품사성을 지닌 채 부사어로도 쓰이는 것과 다르다면, 이 의미는 ‘부사’로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부사, 즉 부사 부사어의 기능 영역(문장성분)은 다른 실사류와는 달리 오직 부사어로만 충당되는 것이 될 것이다. 역으로, 동일한 의미 항목이면서 부사어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으로도 쓰이는 경우는 부사로 여길 필요가 없다. 이는 명사·동사·형용사·대사·수사가 부사어로 쓰일 때 부사로 여기지 않는 관점과 동일하다.

부사의 이러한 성격이 종래 실사에 귀속시킬 것이냐 허사에 귀속시킬 것이냐의 혼란을 야기한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문장 성분 면에서 범위가 매우 협소한 것을 가지고 상당수의 중국학자들이 “부사는 지닌 의미가 비교적 약한 편이어서 명사나 동사 형용사처럼 뜻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부사는 허사에 속한다.”¹⁷⁾는 식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했던 것 같다. 이는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여 부사어에 충당되는 것을 부사라 한 것과 곧바로 모순된다.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수식을 한단 말인가? 내용 분류를 보면 이러한 모순된 사고는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즉, 이들 부사를 의미에 따라 時間·程度·狀態·範圍·否定·疑問·推度·判斷·連接·勸令·謙敬¹⁸⁾ 등으로 분류한 경우를 예로 삼아 말하자면, 뜻이 없이 시간이며, 정도며, 범위며, 상태며 하는 등등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다.

17) 張斌·范開泰(2002 21), 『現代漢語虛詞研究綜述』, 安徽教育出版社.

18) 楊伯峻·何樂士, 앞의 책, 語文出版社, 1992, pp.223~224 참조.

III. 결론

고대한어의 虛詞에 대한 인식은 漢代에서부터 보인다. 단어는 부단히 생성되고 발전·변화하며 소멸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앞 시기 언어를 뒤 시기 언어로 해석하는 訓詁를 행할 때,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여긴 어휘에 대해서는 ‘虛’ 등의 글자로 그 개념을 나타내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모종의 문법적인 기능만을 갖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글자와 표기가 같은 경우(同一 文字)가 많고, 文法化의 주된 요인이 되는 단어의 ‘虛化’가 부단히 진행되어 동일한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증가한다. 이로 말미암아 소위 ‘虛’에 대한 인식은 前代 언어에 대한 各人の 해독 수준과 이해 방식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虛와 實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고, 언어와 문자의 본래 속성으로 인하여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음을 피할 길이 없다. 게다가 訓詁에 있어서의 實·虛 인식은 현대의 서구식 문법적 사고, 예컨대 품사론 같은 관점에서 다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古代 經典의 注釋에 사용한 ‘詞, 語助, 助語’ 등의 용어가 가리키는 단어나, 劉勰이 『文心雕龍』(章句第至三十四)에서 “至於‘夫惟蓋故’者, 發端之首唱, ‘之而於以’者, 乃筭札句之舊體, ‘乎哉矣也’者, 亦送末之常科.”(‘夫惟蓋故’와 같은 것은 시작을 머리에서 알리는 것이고, ‘之而於以’는 곧 어구 가운데에 삽입된 옛 형식이며, ‘乎哉矣也’는 역시 끝을 마무리하는 통상적인 부류이다)라고 하여 문장 속에 놓이는 위치에 따라 분류한 이들 단어는 대부분 虛字의 개념 범주에 드는 것들이다. 宋代 이후 소위 ‘虛字’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각각의 기능을 설명하는 용어가 생겨나고, 이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총괄하는 개념들이 만들어진다. 元代에 盧以緯가

『語助』에서 虛字의 쓰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清代에 이르러 劉洪의 『助字辨略』이나 王引之의 『經傳釋詞』 등에서 虛字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총괄한 것이 그것이다.

『馬氏文通』이 영어 문법의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기술하기 위한 술어들을 쏟아냄으로써 단어의 虛와 實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오늘날 ‘虛詞’라는 이름으로 아우르는 고대한어의 어휘들은 清代의 여러 저작 중에서 ‘虛字’로 지칭되는 어휘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현대에 이것들의 하위 분류체계를 『馬氏文通』을 계승하여 介詞·連詞·助詞·歎詞로 정착시키면서 허사에 드는 어휘의 수는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오늘날 대표적인 부사로 여기는 어휘들을 『馬氏文通』 이전에는 ‘虛字’로 여겼는데, 『馬氏文通』은 오늘날의 부사에 근접하는 단어군을 ‘狀字’라 이르고 이를 ‘虛字’가 아닌 ‘實字’로 여긴 점이다. 그의 고대한어의 품사를 9가지로 나누고 ‘名字, 代字, 動字, 靜字, 狀字’는 實字로, ‘介字, 連字, 助字, 嘆字’는 虛字로 여겼다. 馬建忠이 ‘狀字’를 ‘實字’로 여긴 것은 그가 영어에서 ‘副詞’가 수식 기능을 담당하는 두 부류의 대표적인 어휘 가운데 하나이고, 수식 기능을 하는 바라면 ‘虛字’일 수 없기 때문이었음을 시사한다. 그의 책이 清代 학자들의 인식을 계승한 면을 여러 곳에서 보이면서도 부사를 ‘實字’라고 여긴 것은, 한어에서 ‘副詞’라는 품사의 시작이 ‘狀字’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대 학자들의 ‘副詞’가 ‘狀字’를 계승한 것인데도 이를 ‘實詞’로 여기는 사람에 못지 않게 ‘虛詞’로 여기는 사람도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말한다면 ‘虛’와 ‘實’에 대한 인식이 직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양자를 구분하는 이유와 뿌리 및 경계를 명확하게 살피지 않은 탓이라고 할 수 있다.

漢語에서도 품사를 가르는 기준은 단어의 실질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문법적 기능)의 차이이다. 그런데 영어에서 기능적 의미를 갖

는 중대한 표지인 형태나 형태의 굴절 변화가 한어에는 결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기능적 의미만을 갖는 단어를 ‘虛詞’라고 명명하면서도 실사와 허사의 경계에 대하여 공통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히 허사의 하위 부류 분별에 있어서도 혼란이 적지 않다.

부사를 허사로 보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종합해보면 의미상 대부분의 부사는 허화한 것이고, 숫자로 보아 부사는 고정적이며, 일반적으로 통일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문장에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고찰해보면 모순된 점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먼저, ‘虛化’에 대해서 말하면 무엇이 어떻게 허화 되는가에 대한 분석이 없다. 언어의 문법화 과정의 한 표지로서 ‘虛化’를 염두에 두었다면, 고대한어에서 명사·동사·형용사·대사·수사 등이 부사어로 쓰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부사를 겸한다고 하는 모순된 태도는 설명할 길이 없다.

다음으로, 그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허사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사람에 따라 부사의 범주, 즉 어휘 수는 가지가지이며,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부사어’가 되는 점을 통일된 기능이라고 한다면 수식 성분이니 더더욱 ‘虛詞’라고 할 수가 없다. 문장 성분과의 1대1 대응관계가 없는 명사·동사·형용사·대사·수사·양사 등에 대하여 대응관계가 분명하므로 ‘虛詞’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또, 문장에서 위치가 고정되기는 여러 가지 성분으로 쓰이는 다른 실사류와 마찬가지로이다.

부사는 비록 명사·동사·형용사·대사·수사·양사 등과는 쓰임의 범주가 다르기는 하나, 분명히 문(文) 중에서 단독으로 문장 성분이 되는 ‘實詞’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副詞’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나, 동사·형용사·명사·대사·수사 및 양사 등이 여러 가지 문장 성분

으로 쓰이는 것과는 달리 동사·형용사·다른 부사 및 이들에 상응하는 어구를 수식하는 성분으로만 쓰이는 단어의 의미 항목이다'라고 정의한다.

< 참고문헌 >

- 張斌·范開泰, 2002, 『現代漢語虛詞研究綜述』安徽教育出版社.
- 楊伯峻·何樂士, 1992,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 語文出版社.
- 寥振佑, 2001, 『古代漢語特殊語法』內蒙古人民出版社.
- 許世瑛, 1966, 『中國文法講話』開明書局.
- 郭錫良, 1981, 『古代漢語』上冊, 北京出版社.
- 朱德熙, 1982, 『語法講義』北京商務印書館.
- 呂叔湘, 1980, 『中國文法要略』北京商務印書館.
- 王力, 1943, 『中國現代語法』北京商務印書館.
- 劉景農, 1994, 『漢語文言語法』中華書局.
- 陳承澤, 1922, 『國文法草創』北京商務印書館.
- 黎錦熙, 1924, 『新著國語文法』商務印書館.
- 呂叔湘, 1986, 『馬氏文通讀本』上海教育出版社.
- 王維賢, 1963, 「『馬氏文通』句法理論中的“詞”和“次”的學說」, 『杭州大學學報』
- 劉志祥, 2006, 22卷3期), 『馬氏文通』之‘頓’小議 『四川教育學院學報』.

Ancient Chinese Definition of the Adverb

Pak, Sang-lyung
(Honam University)

Abstract

Ancient Chinese vocabulary is classified into content word and function word. Because of the indefinite boundary between adverbs and non-adverbs, the explanations of adverbs are various. Even there are many different ideas on the problem of classification in content word and function word. This paper interprets the concept about them before and after *MA SHI WEN TONG*. It also discusses the category of adverbs in ancient Chinese.

Keywords : Ancient Chinese *MA SHI WEN TONG*, adverb boundary, the category of adverbs.